보 도 설 명 자 료
('21. 10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**전력수급관리는 전력피크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올여름 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비중은 약 10%임**
(10.20일자 매일경제「정부가 '영끌'한 태양광...올여름 전력 5%도 기여 못했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--

1. 기사내용

□ 올해 **7~8월 태양광 전력의 전체 발전량 기여도가 5% 이하**에 그침

○ 정부는 7월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수요를 기록했다고 하였으나, **피크시간대가 아닌 월간 전체로 따진 기여도**는 이에 못 미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7~8월 월별 평균 태양광발전 발전 비중이 약 5% 이하라는 것은 **태양광발전이 안되는 밤시간까지 포함**한 24시간 평균수치임

□ 전력수급 관리는 **전력피크 대응에 초점**을 맞추고 있으며, 올여름 (7~8월) **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비중은 약 10%**임

○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**전력사용 최대 순간의 전력수요까지 발전**이 이루어져야 하므로, **전력수급 관리는 전력피크 대응**에 초점

○ 비계량 태양광발전은 **여름철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14~15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**함에 따라, **전력시장 수요상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과거 14~15시에서 16~17시로 이동*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□ 정부는 **태양광발전의 변동성 대응**을 위해 **ESS·양수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**하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

※ 문의: <산업통상자원부>
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(044-203-3880) / 박환준 사무관(3886)